

지역방송의 지역성 변화

개념적 접근

조항제*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소, 공간, 문화가 하나의 '동형체'였던 전근대시기에 지역적 정체성은 모든 정체성을 통합한 하나의 영토였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영토성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은 일방적 탈영토화라기보다는 공간의 다층화와 다차원화에 따른 지역성의 입체화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지역은 동질적 이웃의 자연적 군집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합목적적 이해 집단의 공간이 되며, 지역성 역시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형성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체성이 된다. 규모의 경제에 충실했던 텔레비전의 네트워크화는 네트워크의 소재지와 나머지 지역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의 로컬리즘은 정책적 강제가 아니면 구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방송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수직적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기호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화'와 수평적으로 방송의 지리적 권역을 확대하거나 타 미디어 영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팽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분권화와 참여 같은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고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양자 모두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수평적·협조적 관계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패는 결국 지역방송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애착심을 정치적 자치의 효능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얼마만큼 지역방송이 글로벌화와 로컬화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지역성, 지역방송, 공간, 장소, 네트워크방송

1. 서론: 문제의 제기

한국의 사회과학에서 지역¹⁾은 가장 중요한 연구문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 hcho@pusan.ac.kr

1) 여기에서 지역은 개인들이 일상적이고 대면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상대적으로 작

서구에서도 한때 스페인이나 북아일랜드 등에서 지역 독립운동이 거셀 즈음에는 지역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소자(E. Soja)는 서구의 주요 정치적 정체성으로 성, 계급 그리고 인종 등의 세가지를 제시했고, 카스텔(M. Castells)은 종교를 지금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으로 꼽았다(DeLeon & Naff, 2004). 분석의 단위를 국제적인 장으로 넓힌다면 아마도 국가성(nationality) 또는 종족성(ethnicity)이 중요 변수로 추가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들 논자에게 지역은 약화되거나 사라진 변수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지역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변수가 떠올랐고 텔레비전에서도 지역은 중요한 연구의제가 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방송은 중요도가 낮았고, 오랜 기간 변화 없이 정체되어서 연구자들의 의욕을 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방송은 꾸준한 관심이 되어왔다. 그 이유로 직접적인 것은 지역 민영방송의 신설과 IMF 구제금융 시절의 통폐합 '위협', 그리고 위성방송 등의 등장과 디지털화 등이 예고한 지역방송계의 재편 가능성 등이고 환경적·간접적인 것으로는 뒤늦게 실시된 지방자치제와 2000년대에 등장한 지역분권정책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다. 선진국인 유럽의 방송에서도 같은 방송이라도 라디오가 아닌 텔레비전의 지역분화, 탈중심화 현상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인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 현상은 정치적·문화적·기술적인 것이 복합되어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났다. 물론 그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것이다.²⁾ 텔레비전의 중앙적 획일성 또는 반 지역적 다양성은

은 규모의 경계를 가진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 개념은 중앙과 지방, 중심과 주변을 전제하는 특정 국가 내 공간과 달리 그 경계와 정체성이 반드시 국가와 일치하지 않으며, 분리 독립을 위한 분쟁을 낳기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국가적 방송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소속 성격이 강한 (지역)방송에서 리지오널(regional)이 아닌 로컬(local)은 지역보다는 지방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더 어울리지만, 반대로 그만큼 지역방송 개념에는 지방에 담긴 주변적이고 종속적인 현실을 벗고 싶다는 목적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방송이 지역방송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주장은 펴고 있는 이 글은, 물론, 지역방송 개념을 사용한다.

2) 이를테면 영국의 경우, 이미 1935년에 롭슨(W. Robson)은 *The Political Quarterly*에 방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공영텔레비전의 가장 큰 취약점 중의 하나였다(Harvey & Robins, 1994).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방송의 로컬리즘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로컬리즘은 지역적 공간의 차이를 ‘무시’하는(더 정확하게는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된) 위성방송이나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인해 버려져야 하는 구질서의 하나로 취급되기도 하였고, 탈규제화의 바람으로 지역텔레비전이 ‘몸 불리기’의 합병 대상으로 변질되어 기존의 몫까지 위협받기도 하였다. 더구나 유럽의 공영방송 일부는 슬림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사의 규모를 대폭 감축시키기도 했다(Morgasa Spá, Garitaonandía & López, 1999).

이 가운데에서 나타난 희망적 조짐은, 지역 독립방송 및 지역용 공영방송(특히, 프랑스의 FR3)이라는 새로운 지역방송의 모델이 등장했다는 점과 이들 소규모 텔레비전에 대한 시청자의 큰 호응이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일부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이 그 지역을 넘어 소비될 수 있음으로써 지역방송 또한 미디어의 글로벌화에 동참하는 한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히 유럽에서, 정치논리가 중앙집권에서 지역분권으로 바뀌면서 지역미디어가 새로운 ‘정치적 장’이 되어 그 발전가능성을 뚜렷하게 확인받은 사실이다.

이 가운데서 자주 제기된 문제는 방송 로컬리즘(localism)의 정체, 다른 말로 바꾸면 지역방송의 지역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미디어의 글로벌화, 테크놀로지의 고도화 등으로 지역이 가진 공간 구속력이 크게 약화되고 지역적 특이성보다 국가적·글로벌적 보편성이 더 강조되면서, ‘미래에도 로컬리즘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하는 보다 단적인 물음으로 직결된다. 로컬리즘은 시장 통합이나 테크놀로지의 발전, 각종 공간적 경계의 철폐 등과 같은 미래의 추세에 하나의 장애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Anderson & Curtin, 1999).

그러나 이 글은 지역·장소·공간이 여전히 중요한 정체성의 요건이며, 미래

송의 권력 집중화와 중앙화(BBC)를 지적하면서 지역분화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Harvey & Robins, 1994).

의 추세는 이러한 지역의 의미를 사라지게 한다기보다는 다차원화 혹은 입체화시킨다는 입장에 선다. 뚜렷하게 이름 있는 학문적 유파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입장은 지리학에서는 로빈스(Morley & Robins, 1994), 매시(Massey, 1992), 카스텔(Castells, 1999) 등이, 미디어연구자들에서는 몰리(Morley, 1996; 2001), 쿨드리(Couldry, 2000), 스캐넬(Scannell, 1996) 등이 주창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성이란 무엇인가? 지역성은 근대에 들어 어떤 변화를 거쳐 왔고 그 변화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체성 개념에 내포되기 마련인 정치성이 지역성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장소의 구속력이 있기 어려운 방송에서 장소를 강조하는 로컬리즘은 어떻게 구현되었거나 억압받아 왔는가? 이에 대한 방송의 최근 대응은 앞서 언급한 지역성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변화는 어떤 정치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하는가?

서론의 마지막에 거론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글의 검토대상,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의 대상은 주로 미국 및 유럽의 지역방송과 영미권 문헌이다. 이 점으로 인해 이 글의 논증결과가 보편화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의 방송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나라의 방송제도에 원형을 제공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참고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 모델 논의로는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다음으로 용어에서, ‘로컬리즘’은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와, 지역적 정체성 또는 지역문화의 특이성을 보호하는 문화다양성주의 등의 두 가지 의미를 합친 것으로 쓰고자 한다. 우리말의 ‘지역주의’로 쓰지 않은 이유는 이 용어가 특정 당에 대한 지역적 몰표를 가리키는 정치적 용례로 보편화되어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역방송’ 개념도 용례가 다양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Morgasa Spá, Garitaonandía & López, 1999), 이 글에서는 지역 소재의 비네트 워크 방송을 통칭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기본적인 것은 주 1에서 언급한 정의를 따르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글의 목적에 맞게 주로 지역방송의 권역(미국 상업방송에서는 ‘시장’으로 통칭됨)을 가리킨다.³⁾

2. 지역성의 개념적 논의

1) 지역성의 정의

지역성이란 정체성의 하나로 개인 또는 공동체가 특정 공간 또는 장소와 연계해 가지는 일종의 사회적·집단적 정체성이다. 풀어 말하면, “주어진 지리적 공간 내에서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경험, 유산, 이해 또는 기대에 의해 형성되는 소속감”(Scriven & Roberts, 2001, p. 590; 괄호: 인용자)이다. 정체성 일반의 뜻이 “나(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지역성은 “나(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따라서 때로 정체성은 ‘어떤 종류의 사회적·자연적 공간에 접근할 수 있나, ‘어떤 이웃과 만날 수 있나, ‘어떤 동선을 통해 어떤 유대를 가지나’ 같은 지역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관계론’ 또는 ‘재구성론’으로 부를 수 있는 쉴레진저(Schlesinger, 1987)의 정체성론에 따르면, 정체성은 타자(他者)와의 ‘차이’에서 기원하며 이 차이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이다. 또 정체성은 어떤 원초적(primordial) 본질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간 인정이나 배제, 개방과 폐쇄가 작동하는 관계와 표현의 체계이다. 따라서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적이면서 과정적인 것이다. 쉴레진저는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하나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 소속감과 차이의 확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구성의 요소가 계속 맞물려서 작동한다”(pp. 236-237; 괄호: 인용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비본질주의(non-essentialism)이론⁴⁾에서 중요한 것은 이

-
- 3) 이 점이 주로 원초적 공동체에 주목하는 인류학보다 행정제도적 지역을 다루는 정치학적 접근에 이 글을 더 가깝게 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인류학에서도 지역을 ‘원초적’인 것으로 보다는 ‘관계적·구성적’ 개념으로 보고자 하는 문제제기(Gupta & Ferguson, 1992)가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 문제들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4) 정체성 자체에 원초적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본질주의와 그보다는 타자와의 관계와 재구성의 과정을 강조하는 비본질주의의 이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드워드(Woodward, 1997)를 참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대한 주목

경계선이 고정되지 않고 동적이며, 늘 타자의 존재를 통해 확인 또는 강화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등장한 ‘유럽(적 정체)성’은 이 이론에 따르면 전 세계적 시장통합으로 나타난 ‘글로벌화’라는 타자의 반대급부이다. 글로벌화의 위협이 유럽성이라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강하지 않았던 정체성을 재창출·강화시켜 우리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럽화는 유럽의 국가 지역간 유대와 통합을 강조하면서 유럽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하는 또 다른 반대급부를 몰고 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국가의 정체성이 형성된 것과 매우 유사한 과정이다. 물론 모든 외부 위협에 정체성이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위협에는 저항적인 것이 되어 자신을 유지하려 하지만, 때로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기를 변화·순응시키기도 하는 것이다.⁵⁾

이 같은 논리를 지역에 적용하면, 지역성에서 차이의 경계는 지리적인 것, 공간적인 것이다. 지역성에서는 지리적 또는 지도의 경계를 따라 ‘우리’와 ‘그들’에 대한 포함과 배제가 나타난다. 이 경계 내에서 지역성은 “시간과 집단적 기억, 생생하면서도 공유된 전통, 그리고 공통된 과거 및 유산에 대한 의식을 통해 지탱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영토와 경계의 복잡한 지도 그리기, 곧 ‘우리’와 ‘그들’을 정의하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통해 공간을 가로질러 유지되어야만 한다”(Morley & Robins, 1995, p. 72). 다시 말해, 지역성은 어떤 공간 내의 것이 다른 공간 또는 그 둘을 합친 공간에서 축적·통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지역은 ‘차이의 지도’ 속에서 같은 것을 내재화하고 이를 일종의 해석틀로 삼으면서 상징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루며 살고 있는 어떤 장소인 것이다. 이 같이 지역 개념의 가장 큰 전제는 공간적 차이이다.⁶⁾

에서는 본질주의적 이해가 우세하고 그 해체와 변형과정에서는 비본질주의적 이해가 자주 이용된다. 물론 정체성은 이러한 본질·비본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

- 5) 정체성의 세가지 종류, 즉 ‘정당화 정체성’, ‘저항적 정체성’, ‘투사된 정체성’에 대해서는 카스텔(Castells, 1996)을 참조하라.
- 6) 이 점은 자주 혼용되는 지역과 공동체의 개념 차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해준다.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은 친밀하면서 가까운 친족으로 정의되면서 지연과 혈연을 그 기본요소로 하였다. 그러나 교통·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고, 사회적 이해의 개념이

그리고 이 차이에는 우월/열등이나 지배/종속 같은 가치관계·역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직적 범주가 아니라 수평적 범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 정치경제적·문화적 위계에서 ‘하위’가 되는 지방 또는 변방이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이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정체성은 타 정체성과 차이의 인정과 배제, 개방과 폐쇄의 과정을 반복한다. 만약 이 차이가 불평등체제인 차별로 전화되거나 강제적 동일화의 대상이 되어 인정체제가 깨어질 경우 이 정체성은 앞서 본대로 저항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정체성들이 만나는 경계에서 정체성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유이다. 지역성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방임상태에서도 중앙·집중화 경향이 존재하고 있어 차이가 차별이 될 잠재성이 있다면 지역은 언제나 ‘저항적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중앙화 경향은 하나의 병폐적 현상이 되며, 차이를 유지하려 하는 지역주의는 이에 대한 안티테제로 규범화된다.⁷⁾

2) 지역성의 변화

지역성은 매우 기초적이면서 구체적인, 하버마스의 용어를 빌리면 생활세

도입되면서 이 개념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집단 일반이 된 것이다. 혈연이나 지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버공동체는 이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된다. 물론,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개념적 논의들, 이를테면 공동체와 그 하부개념 및 커뮤니케이션과의 필수적 관계(Firedland, 2001), 사이버공동체와 기존 공동체의 차이(Carlhoun, 1998) 등이 공동체 개념의 무제한적 확장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기는 해도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장소·공간의 비중은 약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의 개념 확장은 지역과 공동체가 가지는 이전의 배타적 일대일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역으로 ‘지역’공동체 논의에서는 장소·공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 7) 한국에서 지역과 지역방송에 대한 논의가 공존과 분권을 위한 가치 지향적 개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의 경향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야말로 수많은 연구들이 “지역방송은 지역 방송다워야 하며, 그것은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라는 동어반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또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다 분석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게 한 이유이기도 했다(임영호, 2002).

계(life world)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장소의 하나로 지역은 개인의 관행적 일상과 사회화과정의 본질적 기초에 해당하며 각종 의사결정의 밑그림 역할을 한다.⁸⁾ 그래서 이 정체성의 덕목은 마치 가족 같은 기초공동체의 그것처럼 안정성, 신뢰, 편안함 같은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지역을 논할 때 고향, 향토, 유년기의 기억 같은 것이 반드시 거론되는 이유이다(윤석민 외, 2004; Morley & Robins, 1995). 특히 지역성이 다른 정체성, 이데올로기 등을 통합하고 있었던 전근대의 경우 지역성은 아예 사회화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는 전형적인 ‘영토’였다.

그러나 교통·커뮤니케이션·미디어가 크게 발달한 산업사회가 되면서 지역의 면모는 달라지게 시작했다. 장소와 장소 사이의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자 ‘비동시적인’ 두 장소의 (시간적) ‘동시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장소에 시간을 개입시킴으로써, 이전까지의 고정된 의미의 장소 지역개념은 동적이며 상대적인 의미의 공간개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시-공간의 원격화’(Giddens, 1991)나 ‘시-공간의 압축’(Harvey, 1989)은 이러한 변화를 적시한 말이다. 시기 면에서 근대는 국가가 가장 강력한 공간적 경계로 등장했을 때이다. 원격화와 압축이 아직은 국가라는 경계 내의 현상으로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경조차 넘어서는 미디어, 곧 위성방송, 인터넷 등이 보편화되면서 공간의 의미는 더 확장되고 다차원적이게 되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닌 미디어의 공간 즉 가상공간과 독자적인 장소가 없고 흐름(flow)에 의해 위치가 규정되는 물질적 조직이 만드는 공간 이른바 ‘흐름의 공간’(Castells, 1999)이 등장한 것은 이의 예이다. 이처럼 지역은 이전의 단일한 형태에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갔다. 이는 단적으로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로 표현되는, 지역이 가진 영토적 의미가 탈색되는 과정과 거의

8) 구체적으로 지역성을 구성하는 유형적 요인은 기후나 바다, 산 같은 그 지역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자연환경, 지하자원이나 대규모 산업공단, 항만 같은 것과 관련 있는 경제적 요소, 다른 지역(또는 표준어)과 다른 언어 또는 사투리, 역시 자연환경의 산물인 음식과 상징적 의례인 축제나 풍물 등이다. 이는 귀속적 또는 지리적·물리적 지역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시간에 의한 장소의 대체 또는 억압을 주장하는 이러한 근대주의적(물론 일부 탈근대주의자들도 공유하는) 공간관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반발은 근대주의가 모든 장소의 시간이 서구적 근대를 향한다는 목적론적·일률적 진화관으로 인해 장소가 가진 여전한 구속력, 장소의 정치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을 무어스(Moore, 2004)는 ‘초장소화’(trans-localized) 관점으로 부르면서 근대주의의 ‘무장소화’(non-localized)와 대비시킨다. 스캐넬(Scannell, 1996)도 미디어가 장소를 무화시킨다고 하기보다는 장소를 ‘이중화’(doubling) - 실제의 장소와 미디어의 장소로 - 시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테크놀로지로 인해 장소와 장소 사이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공간의 층위가 다원화·복합화될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거나 주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 사회에 들어 재영토화로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면서 장소·공간의 의미는 정치적·문화적인 영역으로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Couldry, 2002; Massey, 1992; Morley, 1996).

이러한 주장의 성격은 공간의 차원과 개념을 ‘지리적/사회적’, ‘절대적/상대적’인 것으로 나누어 유형화한 다음의 <표 1>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공간을 지리적/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물리적 장소로 명확하게 규정된 지리적 공간(‘영토’, ‘로컬’)이 하나의 사회적인 공간, 예를 들면, 하나의 공동체 또는 국가사회와 일대일의 ‘배타적’ 관계로 일치했던 것이 지금은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Pries, 2005). 또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의 구분은 공간 자체에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관점과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소 내 요소 사이의 위치관계의 틀(framework)이 공간을 구성한다는 관점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다음 <표 1>에서 보면, 먼저 근대주의자들은 절대적·지리적 공간인 본질·용기로서의 장소가 상대적·사회적 공간인 사회적 관계와 상징체제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를 비판하는 관점은 기본적인 공간인 절대적·지리적 공간을 포함해 공간의 개념이 다층적·다차원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전자와 비교해 볼 때, 후자의 관점은 공간을 지리적·사회적·절대적·상대적인 것이 모두 포괄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표 1> 공간의 차원과 개념

공간의 차원	공간의 개념	
	절대적	상대적
지리적 공간	본질·용기로서의 장소	(장소 내) 구성요소 사이의 위치 관계의 틀 / 지리적 관계와 질서 속에 배태된 (물질적) 대상의 지형
사회적 공간	인정과 배제의 사회적 공간 (예: 국민-국가)	사회적 관계, 상징체 (예: 사이버공간)

출처: 프리에스(Pries, 2005, p. 172)를 일부 수정.

이는 현대의 도시를 하나의 상상적 ‘제도’로 보는 다음과 같은 로빈스의 주장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하나의 범위 - 가능성과 한계 - 를 정해준다. 이 범위 안에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우리는 도시생활을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도시가 디자인·계획·운영되는 하나의 미적이며 지적인 영역을 (다시)규정한다”(Robins; Anderson & Curtin, 1999, p. 292에서 재인용; 괄호는 인용자). 여기에서 도시의 지역성은 지역미디어, 건축, 음악, 각종 도시 개혁 프로젝트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총합으로 “도시의 공간에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회집단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담론과 관행들의 한 산물”(Anderson & Curtin, 1999, p. 291-2)로 포괄적 범위를 지닌 정체성이다.

3) 지역성의 입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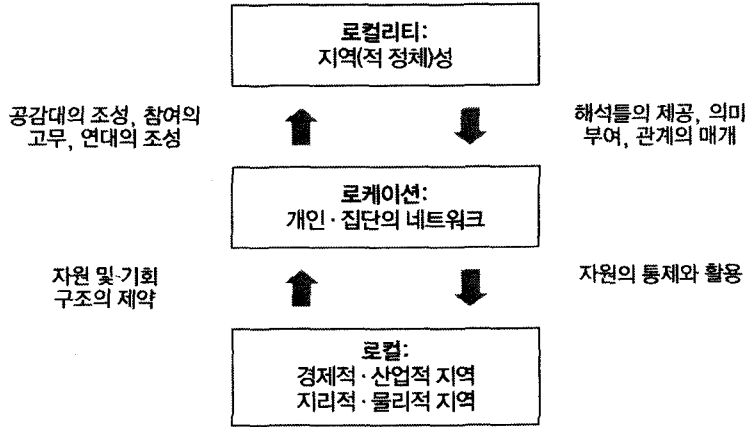
이처럼 현대사회에 들어 지역의 의미는 정치적·문화적인 것으로 확장되고

지역간 연계 또한 복잡화·고도화되었다. 이는 실재구조로 볼 수 있는 기존의 ‘영토’적 공간, 곧 지리적·물리적 지역과 경제적·산업적 지역이 가진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이 더해지면서 지역개념이 입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활동의 장으로 스스로 사회생활을 구성한다기보다는 (여전히)제도나 관행에 의해 구성되는 것”(Craib; Murdock, 1993, p. 530에서 재인용; 괄호: 인용자)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공간과 제도·관행이 맺는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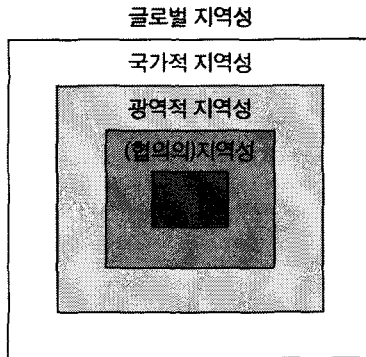
이러한 지역개념에서 지역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실재구조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양·질적 면모가 달라졌다 해도 여전히 해당 지역의 자원 및 기회구조를 제약하는 힘을 가진다. 애그뉴(Agnew, 1987)는 이를 로컬(locale)로 불렀다. 다음으로는 이 실재 내 개인과 집단의 네트워크구조가 있다(로케이션; location). 이는 개인 및 집단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각종 제도와 조직에 대한 참여를 고무하며, 연대와 통합의 기운을 조성해 지역성(로컬리티; locality)을 형성시키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지역성은 상황에 대한 해석틀을 제공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여러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매개가 됨으로써 다시 네트워크와 실재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애그뉴에 따르면, 지역이란 이러한 ‘관계와 관계’(interrelation)의 산물이며, 실재구조와 네트워크가 지역성으로 통합되고 이 지역성이 다시 네트워크와 실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동적인 순환과정이다(locale \leftrightarrow location \leftrightarrow locality).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또 이러한 지역은 흐름의 공간 개념이 잘 보여주듯이 특정 경계 내로 한정될 수 없다. 이 점은 지역성 역시 일종의 다층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층성은 가장 작은 공간인 가정부터 가장 큰 글로벌에 이르는 동심원의 형태를 취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그 사이가 압축되어 있다. 이 점은 인간의 경험 공간이 중첩되는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2>는 (협의의)지역성을 가장 작은 단위로 하여 이러한 다층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지역의 구성 및 순환



<그림 2> 지역성의 공간적 다층성



이 <그림 2>를 보면, 지역성은 그 상대적 무게중심이 여전히 협의의 것에 있으나(음영 부분) 글로벌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까지도 지역성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지역성의 범위가 협의의 것보다 훨씬 크다. 이 <그림 2>는 로버트슨(Robertson, 1992)이 말한 글로컬화(globalization)의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 문제의식은 글로벌화가 공간이나 사회관계의 지리적 확장(글로벌이

하나의 영토가 되는 관점)과 공간의 제거 또는 시공간의 압축(탈영토화의 관점)의 양면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Brenner, 1999), 글로벌화는 이러한 재영토화와 탈영토화 사이의 동적 역학 또는 글로벌화와 로컬화의 변증법적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식은 글로벌화가 반드시 로컬을 억압한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글로벌의 로컬적 적용양상, 로컬과 이를 둘러싼 다른 단위와의 호환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4) 지역성과 정치성

이러한 지역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그 정도도 개인·집단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폴(Pohl, 2001)에 따르면 지역성은 양적 정도에서 볼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타난다. 가장 낮은 단계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막연한 감만 느끼는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 애착을 느끼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에서는 그 지역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진지한 정치적 표현을 한다.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그 지역의 일상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참여한다. 이 단계론은 적극적·의식적 참여를 귀속적·자연적 동정(同情)보다 높은 단계로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을 지리적·문화적 산물임에 못지않게 정치적 산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현대국가에서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는 대부분 권력적 위계나 국토의 기능적 분할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위적 제도의 반영물이지만, 이 제도의 민주주의적 골격은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통적인 판단기준(reference)을 제공해주고, 정치적 에너지(학교, 동네 결사, 노동조합, 정당, 사회운동(체)들)를 계속 공급해준다”(Waisbord, 1998, p. 394). 이 같은 정치적 에너지들은 지역에 대한 태생적 귀속감과 정서적 애착심을 정치적 참여와 자치의 효능감으로 발전시킨다. 여기에서 지역성은 소속감이나 애착 같은 ‘주어진’ 본질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정치제도가 그린 경계에 상응해 해당 지역의 각종 공공제도나 조직에 참여하고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형성시키는’ 상대적이고 동적인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은 1차적 귀속의 자연성을 넘어 지역적 자율과 자치, 그리고

지역민주주의 등의 정치성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

이러한 지역의 정치성은 카스텔 등(Castells, 1999; Hutchins, 2004)이 말한 장소의 저항성도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 카스텔에 따르면, 정보사회에서 자본의, 초국적기업의, 미디어 등의 흐름의 공간은 권력과 지배가 이루어지는 초영토적이고 비역사적인 곳이다. 반면 역사적 뿌리와 물리적 근거를 가진 장소의 공간은 대다수 사람이 경험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생활하는 곳이다. 따라서 장소는 흐름의 공간과 쉽게 어울리지 않고 때로 대립하게 되는데, 장소가 흐름의 공간에 저항하는 방법은 흐름이 착륙하는 공간에 대한 권리 행사이다. 카스텔은 흐름에 장소가 종속될 것이라는 처음의 목적론적 주장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러서도 장소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그 힘의 원천은 원자화된 개인이 아닌 장소에 기반한 공동체, 자치의 효능감을 가진 사회조직과 정치적 대표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을 서두에 제기한 연구문제에 맞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소, 공간, 문화가 하나의 '동형체'(isomorphism)(Gupta & Ferguson, 1992)였던 전근대시기에 지역성은 모든 정체성을 통합한 하나의 영토였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영토적 지역성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은 일방적 탈영토화라기보다는 공간의 다층화와 다차원화에 따른 지역성의 입체화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지역은 동질적 이웃의 단순 군집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합목적적 이해집단의 공간이기도 하며, 지역성 역시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형성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체성으로 변화되고, 가장 높은 단계의 지역성은 지역에 대한 연계와 참여, 곧 참여적 정치성으로부터 얻어진다.

3. 지역성과 방송

지역성의 입체화와 다차원화는 장소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고도화와 글로벌화, 흐름의 공간의 등장 등과 접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장소의 특성을 무시하는 미디어의 동질화(de-differ-

entiation) 효과라는 통념과는 달리 미디어 역시 장소로부터 반작용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미디어메커니즘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곳, 바로 그 생산과정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강해진다”는 쿨드리(Couldry, 2000, p. 30)의 말처럼 장소와 미디어는 사실 병행관계에 있는 것이다(Morley, 2001). 그렇다면 ‘장소감이 없다’(no sense of place)(Meyrowitz, 1985)는 방송에서도 과연 이 점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 방송의 로컬리즘이 어떻게 억압 또는 구현되었는지, 최근 지역방송의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이러한 지역성 개념에 맞춰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네트워크화와 지역성 억압

역사상의 첫 방송은 지금의 의미로 보면 물론 지역방송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방송들이 하나의 정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공유, 비용을 분산시키는 집중의 경제, 곧 네트워크시스템을 발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제작비가 작은 라디오 시절만 해도 네트워크화의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텔레비전에서 네트워크는 애초부터 ‘선택사항’이 아니었다(Sterne, 1999). 이러한 네트워크는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공동체의 본질과 범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네트워크는 적어도 방송의 커버리지 내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보와 문화를 받는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자매체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조건적 지리’(situational geography)를 바꿈으로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Meyrowitz, 1985, p. 6)이다. 그 결과 물리적 장소(지역)와 사회적 공간(처음에는 국가, 나중에는 더 확대된 글로벌)이 분리되었다.

이 공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신을 중심으로 다수의 지역을 연계시킨 국가, 더 정확하게는 국가화된 일부 지역이었다. 국가는 전파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방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주권적 범위를 확립했다. 이러한 방송의 효과 중의 하나는 모든 가정의 시간을 표준화시키는 것이어서

정기적 방송시청은 국민들에게 생활의 스케줄로 확립되었다. 특히 국가의 의례는 방송의 생중계 이벤트가 되어 국민적 일체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Dayan & Katz, 1992). 적어도 위성방송 등이 나타나기 이전에 방송은 그것이 공영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또는 선진국의 방송이든 후진국의 방송이든 모두 국가적 미디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체제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역의 차이를 부정하고 이를 억압하는 것이기도 했다. 연방제인 미국의 경우, FCC는 방송을 규제하는 기본 원리로 로컬리즘을 천명하고 있었지만 FCC의 규제반경이나 규제 정도로는 뉴욕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방송의 시장성을 제어할 수 없었다(Anderson & Curtin, 1999). 특히 텔레비전 보급이 급속히 이루어진 1950년대는 FCC의 한 커미셔너가 FCC의 ‘매춘시대’로 불렸을 정도로 정부와 네트워크가 밀월을 보낸 기간이었다(Baughman, 1985, p. 13). 그나마 지난 기간 동안 방송의 로컬리즘을 강제했던 조치들(예를 들면, Prime Time Access Rule, SYNDEx Rule, Ascertainment 등)조차 그 실효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변화되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폐지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 중동부의 “전문직을 가진 중류계급, 특히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육받은 층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신념으로 구성된 지적 환경”(Burns, 1977, p. 42), 단적으로 말해 백인·중류·영국 중족 런던지역이 바탕이 된 BBC 문화가 마치 하나의 기술적 표준처럼 영국 전역에 강제되었다.⁹⁾ 이 표준화 과정은 비 런던지역의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켜 그것이 결코 중립적이거나 상호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테크놀로지와 전문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국한된 이 시기의 지역방송은 대체로 네트워크 방송의 중계에 일부 지역용 프로그램(주로 뉴스)이 끼워진 이른바 ‘원도우형’ 방송이 주종을 이루었다. 유럽의 경우 나라별로 그 내부에

9) 이에 대한 평가에는 BBC가 중류계급의 문화에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했던 문화적 민주주의의 바탕을 만들었다는 긍정론(Scannell, 1989)도 있으나 중앙의 집중적 통제는 독점 BBC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Creeber, 2004). ‘지방’과 BBC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Harvey & Robins, 1994).

얼마만큼 균열이 있느냐, 즉 독일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분권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나 벨기에나 스위스처럼 여러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따라 형태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본형은 이러한 원도우 형태를 띠었다. 아마도 공영방송에서 유일한 예외는 미군정의 입김 하에서 지역텔레비전의 연합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른바 ‘연방제 텔레비전’(federated television)을 정착시킨 독일일 것이고, 상업방송으로는 BBC를 의식해 스테이션을 지역에 산재시킨 영국의 ITV일 것이다(Morgasa Spá, Garitaonandía & López, 1999).

이렇게 방송로컬리즘이 주변화되면서 일부 (지역용)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에 의해 선별된 일부 장소에서만 생산·통제되었으며 방송에 등장하는 장소 역시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방송이 동시에 다양한 장소의 수많은 수용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마치 장소를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네트워크의 소재지는 여전히 중요했던 것이다(Scannell, 1996). 미국의 경우 뉴스와 운영은 뉴욕에서, 기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할리우드에서 제작됨으로써 시카고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이 방송 권력에서 배제되었다(Curtin, 2003; 2005). 이 점은 방송지도가 지리적 지도나 정치적·경제적 지도와 결코 같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¹⁰⁾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다. 방송에서 수도-대도시-전문직의 사람들은 수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등장하면서, ‘일반화의 권력’(generalizing power)을 가진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지역·비도시·일반 사람들은 재해나 사고, 범죄 등을 당해 그저 이를 ‘경험’할 뿐인 처지를 보여주는데 불과하다(Scannell, 1989 참조). 이 의견과 경험의 차별이야말로 지금의 체제가 가진 근본적 모순중의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 이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지역방송의 권역지도가 그리는 경계이다. 이 경계는 지역방송 사이에서는 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선이지만 지역방송과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방송의 커뮤니케이션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네트워크와 배급처 사이의 일방적 관계뿐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야말로 방송의 생산에 대한 참여와 의사결정이 새로운 권력이 되면서 방송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분리가 지역을 구분하는 새로운 경계로 등장한다는 주장(Couldry, 2000)의 전형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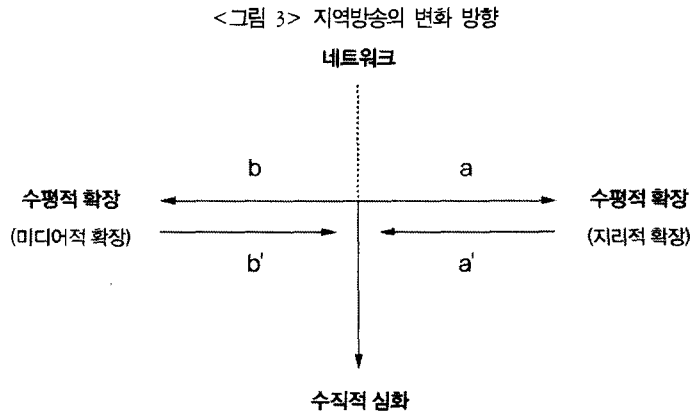
이 점은 더 많은 텔레비전 시청이 시청자들을 더 동질화시키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지역적 다양성을 잃게 되는 현상을 낳았다 (Morgan, 1986). 따라서 만약 어느 한 곳이 정점이 되는 강력한 집중화가 발생하고 있었다면, 국가적 방송은 이 집중을 반영하는, 정점과 개별 지역의 관계로 모든 국도를 재배치하는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이를 강제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텔레비전이 경계를 없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역관계와 차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게 된 이유이다.

2) 지역방송의 수직적 심화와 수평적 확장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유럽에서는 독립지역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체제 측면에서 정치-행정적 지역분권화가 진전되고 지역 정치엘리트의 비중이 커지면서, 둘째, 문화-언어 측면에서 소수 민족과 소수어의 자치권이 인정되면서, 그리고 셋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채널 희소성이 완화되고 디지털화가 도입되면서, 마지막으로 방송시스템 부문에서 탈규제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Morgasa Spá, Garitaonandía & López, 1999). 1980년대 초중반에 법령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해 '비 법적'(alegal)이라는 말을 들은 스페인의 지역방송이나 BBC에 대한 수신료 거부운동까지 펼쳐가면서 네트워크인 채널4 대신 새로운 웨일즈 지역용 독립방송으로 만든 영국의 S4C, 1980년대 후반의 프랑스 F3과 이태리 RAI 3 같은 지역용 공영방송,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 메트로폴리탄 상업방송의 등장 등은 이 지역방송의 사례들이다.

이러한 (준)독립방송의 등장은 다매체화와 글로벌화에 대비해 지역방송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 즉 수직적 심화와 수평적 확장 중에서 수직적 심화로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한 <그림 3>을 보면, 수직적 심화는 지역방송이 네트워크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해 지역의 관점과 시각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며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아 기존 지역방송은 네트워크의 수직적 통합구조의 말단에 해당한다. 이는

지역방송을 중계소 역할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점은 지역방송의 활동반경을 협소하게 해 지역문화(더 좁게는 지역 정보원)에 대한 방송의 기여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지역방송의 지역적 심화는 네트워크로부터의 일정한 자율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지역방송은 하버마스식으로 표현하면 생활세계적 공동체, 지역 민주주의, 지역 공론장에 보다 가까워지게 된다(Friedland, 2001).



최근 스페인과 프랑스의 연구자들에 의해 개념화된 ‘이웃 텔레비전’(télévision de proximité)은 이러한 지역 공론장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다(Morgasa Spá, Garitaonandía, & López, 1999). 이 텔레비전중의 하나인 프랑스의 FR3은 설립 이후부터 방송사와 수용자 사이의 광범위한 지역적 공감대에 기초해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것이 크게 성공해 FR3의 저녁시간대의 지역뉴스(19:10-19:30)는 시청률이 계속 높아져 1997년에는 무려 42%를 달성할 수 있었다. FR3은 이를 다른 장르에도 확산시켜 시사프로그램, 토크쇼, 다큐멘터리 등도 제작했다. 또 같은 시기에 스페인의 카탈루냐 텔레비전도 그전까지 네트워크의 전유물이었던 슌오페라를 제작했으며, 웨일즈의 S4C 역시 같은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비해 수평적 확장은 지역방송이 최근의 글로벌화와 융합추세에 적극

적으로 동참해 기존의 지리적 권역이나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a)는 광역화나 케이블-위성의 수퍼스테이션이 되어 방송의 지리적 권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광역화에는 프로그램의 공동제작-배급 등을 통해 사실상 시장을 확장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 이러한 확장의 일종(a')으로 지역방송이 취재 범위를 확대해 지역과 관련되지만 그 지역 내에서 벌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지역의 시각으로 조명해서 지역민에게 보도하는, 끌어들인다는 면에서 화살표 방향은 다르지만 취재 범위를 넓히는 의미에서의 확장도 있다. 다른 하나(b)는 산업구조면에서 다른 지역방송이나 미디어와 연계, 활동영역을 넓히고 시너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는 영국 사례가 잘 보여주는 인수 합병이다. 영국은 이러한 인수 합병으로 ITV가 4개의 그룹으로 재편성되었고 1997년에는 스코틀랜드TV가 그래피언TV를 합병하고 울스터TV의 지분을 늘렸으며,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또한 크게 증가되었다(Cormack, 1999). 이러한 확장은 새로운 투자자금을 끌어들이 수 있다(b).

a)의 취재 범위 확대는 특히 지역의 중요한 결정이 지역(민) 스스로에 의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더 절실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의 과정이나 방식, 결정하는 사람 등에 대한 지역민(사실은 지역미디어)의 관찰이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필요한 정치적 판단도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지역방송의 지역성이 네트워크에 의해 주어진 배급의 경계, 곧 권역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앞서 본대로 지역성은 국민·국가화에 의해 저해 받았고 최근에는 글로벌화가 강력한 원심력을 발휘하면서 지역성을 해체하고 있다. 방송시장·조직이 지역적일수록 더 많이 글로벌한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로빈스와 콘포드의 역설(Robins & Conford, 1995)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그림 2>의 글로벌 지역성에서 볼 수 있듯이, 역으로 이는 광역이나 국가, 그리고 국제·글로벌한 것에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더 많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지역방송 스스로의 관찰·감시·해석의 필요성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관점에 의해 각종 지역 내의 사안을 해석해주는 능력은 단순히 정보에 접근만 가능한

(기술적)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를 따르면 지역방송은, “흐름의 공간과 장소의 공간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과 해석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톱니’”(Hutchins, 2004, p. 584)가 된다. 물론 이를 모두 지역방송이 직접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모든 지역방송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전략적 제휴와 연계 등이 이것이 가능한 바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심화와 수평적 팽창의 전제는 지역방송의 네트워크로부터의 일정한 독립, 곧 자율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가 정치원리 면에서 로컬리즘을 주창하고 있고 또 설사 제도적으로 이 같은 것이 완비되어 있다 해도 로컬리즘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국가 단위로 통제·운용되면서 지역의 경계를 준수하지 않는 시장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정치체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인프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프라쳇(Pratchett, 2004)에 따르면 이 괴리는 크게 두가지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는데, 하나는 지역이 사실상 자율성을 잃어 지방자치제가 제도적 외피만 남게 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이 자신의 (주로 경제적)이익에 기초해 기존의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을 추구하는 신로컬리즘이나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이익을 위해 때로 중앙정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저항적 로컬리즘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지역방송이 네트워크에 종속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적 생존 때문이고, 따라서 방송과 실패한 로컬리즘은 전자에 잘 어울리는 예였다. 따라서 글로벌화 등이 더해진 더 큰 압박에 대한 반발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로컬리즘은 후자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수직적 심화와 수평적 팽창은 모두 네트워크의 활동 반경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저항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점은 과거 형태의 수직·종속형 네트워크보다는 새로운 수평·협조형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3) 지역방송의 민주성

지역방송의 수직적 심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본대로 지역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정치적 참여에 있다. 가까운 장소에서 이웃과 친숙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교육의 최적의 모델이다. 그러나 이 모델이 지역방송의 권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권역의 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방송의 권역은 참여가 용이한 인구밀도 및 공간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다. 프리드랜드(Friedland, 2001)의 분류에 따르면, 그 권역은 적어도 메트로폴리탄과 (소)공동체의 중간 이상인 매크로-메조(macro-meso) 정도는 된다. 그렇다면 이는 ‘동질적 이웃’의 자연 군집이 아니라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매우 다양한, 또 자주 갈등하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교차하는 복잡한 장소”(Massey, 1992, p. 8)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지역의 성격은 단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의사결정도 정해진 절차, 곧 제도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주가 되는 미디어 역시 원거리용이거나 적어도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원거리용이 합쳐진 것이다. 지역을 억압한다고 여겨졌던 방송이나 인터넷이 이 지점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미디어가 되는 것이다.¹¹⁾ 이 점은 이 권역을 통합시키는 인위적·제도적 수단 곧 정치체제 및 그 주민적 대표성이 지역미디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방송의 로컬리즘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공동체를 회고하는 ‘문화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Anderson & Curtin, 1999)은 이러한 맥락에서 타당성을 얻는다. 재론할 것도 없이, 카스텔이 주장한 장소의 저항성도, 장소를 억압하는 각종 흐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공론적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약시키는 장이 없으면 의의도 효력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방송이 민주적 미디어로 적절하게 역할하고 있다는 주장은

11) 이 점이 바로 란타넨(Rantanen, 2005)이 강조한 미디어의 또 다른 역할, 곧 지역 내에서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ivity)을 높여주는 측면이다. 지금까지 공간이론가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타 지역과의 접촉과 연결을 원활히 해주는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이 부분을 소홀히 해왔다.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의 경우, 지역미디어에 대한 잦은 접촉이 공동체적 유대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Emig, 1995; McLeod et al, 1996)도 있지만, 신문과 달리 지역방송뉴스의 선정적 범죄위주 보도(Gilliam & Iyengar, 2000)나 지역엘리트와의 유착이 가져오는 비민주주의성을 지적·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Gibson, 2004). 예를 들어, 김슨은 도시 재개발계획 같이 주민과 개발자본 사이에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 등에서 지역미디어가 이에 대한 논의를 ‘정당한 논쟁’의 영역이 아닌 ‘합의’의 영역으로 몰아넣어 비판 자체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특히 후자는, 지역분권에 대한 지지가 자율성을 바라는 규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서 나왔다고보다는 지역엘리트들의 정치적 사익에 더 많이 연유한다는 연구(Vries, 2000) 등과 맞물려 방송의 로컬리즘 역시 시청자들보다는 방송을 정치적 도약대로 삼는 지역엘리트들과 지역방송의 소유자들의 이해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Anderson & Curtin, 1999).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역방송이 엘리트에서 또는 네트워크에서 하향식으로만 내려오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만은 아니다. 프리드랜드(Friedland, 2001)는 이러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지역방송의 전부라거나 지역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형성시키는 지배적 힘이라고 성급하게 결론내리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지역의 삶이 이러한 지배를 피해 구성될 수 있을지,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관건은 결국 “그러한 삶 자체의 패턴과 그 삶이 시민적 상상의 더 큰 패턴 속으로 융합되는 그 형식과 수단”(p. 383)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공동체는 위로부터의 압력에 대해 상당한 반작용을 가지며 ‘시민적 상상의 더 큰 패턴’이 가져오는 적절한 형식과 수단이 있다면 지역미디어 또한 반작용의 미디어가 된다는 것이다.¹²⁾

12) 이 점의 일례는 지역미디어가 “사회체제 내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시민운동)집단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거나 일신할 때”(Nicodemus, 2004, p. 166)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이나 기업의 환경파괴 등에 대한 공분을 얻으려 할 때, 그리고 지역문제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처우를 폭로할 때 또한 커진다.

이러한 시민적 상상의 패턴은 지역방송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의 장소성과 지역방송의 이해를 결정하는 다양한 ‘흐름의 공간’들, 곧 네트워크, 지역 엘리트, 방송소유자, 광고주 등이 만나는 인터페이스(interface)의 조건과 환경이 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지역방송의 수평적 확장이 가지는 위험성, 이를테면 미디어집중이 가져오는 폐해나 초국적 자본의 유입 등을 조절하는 힘도 발휘한다.

서두에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규모의 경제에 충실했던 텔레비전의 네트워크화는 네트워크의 소재지와 나머지 배급지역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구조에서 방송의 로컬리즘은 비록 일부라도 정책적 강제가 아니면 구현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예에 미루어 볼 때 최근 지역방송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수직적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기호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화’와 수평적으로 방송의 지리적 권역을 확대하거나 타 미디어 영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팽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분권화와 참여 같은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고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지역성의 다차원화와 입체화에 적용한 결과로, 양자 모두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수평적·협조적 관계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패는 결국 지역방송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정서적 애착심을 정치적 참여와 자치의 효능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얼마만큼 지역방송이 글로벌화와 로컬화 사이에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지역방송을 시민사회와 시민적 덕성의 패턴 속으로 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매시(Massey, 1992, p. 8)는 기든스식의 근대주의 통념

에 저항해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장소가 공동체와 동일시되고 안정된 정체성을 제공한다든 것은 ‘법칙’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였다고 말한다. 그만큼 장소는 복잡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커뮤니케이션·매스미디어가 발달한 근대사회에 들어 장소가 가진 ‘영토적’ 의미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현대인의 정체성이 다중적인 것이 되었다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소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단언은 사이버공간을 실제 공간과 동일시하는 것만큼이나 극단적이다. 이 점에서 장소의 복원 주장이 새롭게 나오고 공간의 파악 또한 고도화되는 것은 근대사회에서도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작지 않게 보는 이들에게는 매우 환영할만한 현상이다.

그간 지역방송 연구에서도 지역이 가진 공간적 의미보다는 그 안의 사회·정치성을 더 중시하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FCC 정책의 비밀관성을 비판하면서 지리적 소재보다는 사회적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나폴리(Napoli, 2000; 2001)나 미국 라디오의 변화하는 로컬리즘을 짚은 스타비츠키(Stavitsky, 1994), 시카고의 지역방송 청문회를 중심으로 로컬리즘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고향에 대해 느끼는 유다르면서 긴밀한 감정”(Anderson & Curtin, 1999, p. 302)보다 민주주의적 참여를 위한 미디어를 강조한 앤더슨과 커턴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앤더슨과 커턴은 ‘장소감이 없는’ 전파 미디어가 더 보편화될 미래에는 로컬리즘에 대한 노력이 원칙으로조차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로컬리즘의 일차적 옹호자들은 방송사의 소유자들인 것처럼 보인다. …… 그들은 로컬리즘보다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보호하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다”(p. 305)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마냥 비공간적 특성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앤더슨과 커턴은 미국의 방송로컬리즘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 여러 주에 걸쳐 방송을 복수로 소유하는 구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방송의 ‘헌신’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자신의 주장에 제한을 두기는 나폴리도 마찬가지이다. 나폴리에게 사회적 내용은 로컬리즘의 한 측면, 즉 문화적 측면의 특이성 또는 다양성의 보존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탈중심화라는 로컬리즘의 다른 한 측면을 위해서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권력 분산이나 지역의 자율성이 반영된 주 스튜디오

의 지리적 소재가 더 중요해진다.¹³⁾ 카스텔이 제기한 장소의 저항성 역사이와 추상수준은 다르지만, 장소의 공간과 흐름의 공간을 대비시켜 정치·민주주의·공론·장소가 시장·효율성·지배·흐름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것이다.

“어떻게 매스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적 참여에서의 위기를 만들고 또 같이 해답도 제공할 수 있는가?”(Anderson & Curtin, 1999, p. 294)라는 질문에 서처럼 로컬리즘에서도 방송은 모순된 위치를 갖고 있다. 장소감이 없어 ‘상상의 공동체’에 가장 어울리는 방송이, 그것도 최근 관련 테크놀로지의 비약적 발전이 더욱 ‘거리의 마찰’을 줄이고 있는 방송이 지역적 특수성을 오히려 권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폴리의 주장대로 분권화는 네트워크의 소재지와 비소재지 사이에서 오는 차별을 극복하려는 장소적 방안이라고 볼 때 테크놀로지 특성과는 큰 관련이 없다. 또 적응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테크놀로지는 지역성에 변화를 주기는 하지만 장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는 없다. 앞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공공제도와 결합된 미디어, 곧 “면대면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비판적 공공담론의 미디어와 이를 만드는 매개적 수준의 제도”인 것처럼, 방송과 로컬리즘의 모순 또한 지역방송과 공공제도의 결합, 지역방송의 시민성과 이를 장려하는 제도가 그 해답이 된다.

지역성은 장소적 특성과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체성이다. 이 장소는 커뮤니케이션·미디어가 고도화된 근대에 들어 다면성·다층성·정치성을 갖추면서 입체화된 것이다. 또 달리 보아 이 장소는 실체가 있는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다. 장소 자체의 성격에서 유래한 것이 전자라면 후자는 지역 사이의 권력 배분이나 교류형태

13) 나폴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역분권을 말할 때의)로컬리즘은 …… 내용 …… 과는 관계없이, 수용자들이 받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사결정 자체의 지역분산을 촉진하는 것이 된다. 이것의 동인은 순수하게 구조적이며 내용은 확실하게 중립적이다. 그래서 통제력과 의사결정의 지역분산이 중심적인 정책 목적인 경우에는 로컬 편성의 지리적 정의는 적절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Napoli, 2001, p. 382).

같은 것에서 온다. 이러한 지역성에서 중요한 것은 분산, 다양성의 존중에 타 지역성과의 공존과 활발한 교류이며 또 중심성이나 전국성과의 원활한 호환이다. 이 점에서 기존 방송의 수직종속형 네트워크는 수평협조형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이 미디어를 만들고 미디어가 지역을 만든다’(Musso; Negrine & Eyre, 1998, p. 43에서 재인용)는 의식 하에 지역방송이 스스로 민주성과 시민성을 조성하는데 우호적 조건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관건이 되는, 지역방송의 장소성과 지역방송의 이해를 결정하는 다양한 ‘흐름의 공간’들, 곧 네트워크, 지역 엘리트, 방송 소유자, 광고주 등이 맺는 관계는 결국 이 민주성과 시민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Ⅰ 참고문헌

- 윤석민·김희진·윤상길·문태준(2004). 방송에서의 이념형적 지역주의와 그 현실적 전개. 『언론과 사회』, 12권2호 121-156.
- 임영호(2002). 공간이론을 통해 본 한국 방송학의 정체성 문제: 지역방송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6권2호, 275-303.
- Agnew, J. (1987).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Boston: Allen & Unwin.
- Anderson, C. & Curtin, M. (1999). Mapping the ethereal city: Chicago television, the FCC, and the politics of place. *Quarterly Review of Film & Video*, 16(3-4), 289-305.
- Baughman, J. (1985). *Television's guardian: The FCC and the politics of programming, 1958-1967*. Knoxville: Univer. of Tennessee Press.
- Brenner, N. (1999). Beyond state-centrism? Space, territoriality, and geographic scale in globalization studies. *Theory & Society*, 28, 39-78.
- Burns, T. (1977). *The BBC: Public institution and private world*. London: Macmillan.
- Calhoun, C. (1998). Community without propinquity revisite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urban public sphere. *Sociological Inquiry*,

68(3), 373-397.

- Carey, J. (1989). *Communication as culture*. London: Unwin & Hyman.
- Carpentier, N., Lie, R., & Servaes, J. (2003). Community media: Muting the democratic media discourse. *Continuu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17(1), 51-68.
- Castells, M. (1996).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 Blackwell.
- _____. (1999). Grassrooting the space of flows. *Urban Geography*, 20(4), 294-302.
- Cormack, M. (1999). United Kingdom: Political devolution and TV decentralization. In M. Morgasa Spá, C. Garitaonandía, & B. López(Eds.), *Television on your doorstep: Decentralization experiences in the European Union*(pp. 413-442). Luton: Univ. of Luton Press.
- Couldry, N. (2000). *The place of media power: Pilgrims and witnesses of the media age*. London: Routledge.
- Creeber, G. (2004). "Hideously white": British television, glocalization, and national identity. *Television & New Media*, 5(1), 27-39.
- Curtin, M. (2003). Media capital: Towards the study of spatial flow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6(2), 202-228.
- _____. (2005). Media capitals: Cultural geographies of global TV. In L. Spigel & Olsson, J. (Eds.), *Television after TV: Essays on a media in transition*(pp. 270-301). Durham, NC: Duke Univ. Press.
- Dayan, D. & Katz, E. (1992). *Media events: The live broadcasting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DeLeon, R. & Naff, K. (2004). Identity politics and local political culture: Some comparative results from the social capital benchmark survey. *Urban Affairs Review*, 39(6), 689-719.
- Emig, A. (1995). Community ties and dependence on media for public affair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2), 402-411.
- Escobar, A. (2000). Place, power, networks in globalization and postdevelopment. In K. Wilkins(Ed.), *Redeveloping communicating for social change*(pp. 163-174).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Ferguson, M. (1990). Electronic media and the redefining of time and space. In M. Ferguson(Ed.), *Public communication: The new imperatives*(pp. 152-172).

- London: Sage.
- Friedland, L. (2001). Communication, community, and democracy. *Communication Research*, 28(4), 358-391.
- Gibson, T. (2004). Covering the world-class downtown: Seattle's local media and the politics of urban redevelopment.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21(4), 283-304.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dford, CA: Standford Univ. Press.
- Gilliam, F. & Iyengar, S. (2000). Prime suspects: The influence of local television news on the viewing public.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3), 560-573.
- Gupta, A. & Ferguson, J. (1992).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7(1), 6-23.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구동화·박영민 역(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한울.
- Harvey, S. & Robins, K. (1994). Voices and places: The BBC and regional policy. *Political Quarterly*, 65(1), pp. 39-52.
- Hutchins, B. (2004). Castells, regional news media and information age. *Continuum: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Studies*, 18(4), 577-590.
- Massey, D. (1992). A place called home? *New Formations*, 17, 3-15.
- Meyrowitz, J. (1985). *No sense of place: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on social behaviour*. NY: Oxford Univ. Press.
- Moores, S. (2004). The doubling of place: Electronic media, time-space arrangemen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N. Couldry & A. McCarthy(Eds.), *MediaSpace: Place, scale and culture in a media age*(pp. 21-36). London: Routledge.
- Morgan, M. (1986). Television and the erosion of regional diversit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0(2), 123-139.
- Morgasa Spá, M., Garitaonandía, C. & López, B. (1999). Regional and local television in the digital era: Reasons for optimism. In M. Morgasa Spá, C. Garitaonandía. & B. López(Eds.), *Television on your doorstep: Decentralization experiences in the European Union*(pp. 1-29). Luton: Univ. of Luton Press.
- Morley, D. (1996). The geography of television. In J. Hay, L. Grossberg, & E.

- Wartella(Eds.), *The audience and its landscape*(pp. 317-342). Boulder: Westview Press.
- _____ (2001). Belongings: Place, space and identity in a mediated world.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4(4), 425-448.
- _____ & Robins, K. (1995). *Spaces of identity: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London: Routledge.
- Murdock, G. (1993). Communication and the constitution of modernity. *Media, Culture and Society*, 15(4), 521-539.
- Napoli, P. (2000). The localism principle under stress. *Info*, 2(6), pp. 573-582.
- _____ (2001). The localism principle in communications policymaking and policy analysis: Ambiguity, inconsistency, and empirical neglect. *Policy Studies Journal*, 29(3), pp. 372-387.
- Negrine, R. & Eyre, R. (1998). News and current affairs in regional television broadcasting. In B. Franklin & R. Eyre(Eds.), *Making the local news: Local journalism in context*(pp. 36-50). London: Routledge.
- Nicodemus, D. (2004). Mobilizing information: Local news and the formation of a viable political community. *Political Communication*, 21(2), 161-176.
- Pohl, J. (2001). Regional identity. In Smelser, N. & Baltes, P. (200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pp. 12917-12922). NY: Elsevier.
- Pratchett, L. (2004). Local autonomy, local democracy and the 'new localism'. *Political Studies*, 52. 358-375.
- Pries, L. (2005). Configurations of geographic and societal spaces: A sociological proposal between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the 'spaces of flow'. *Global Networks*, 5(2), 167-190.
- Rantanen, T. (2005). *The media and globalization*. London: Sage.
- Robertson, R.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 Robins, K. & Conford, J. (1995). Local and regional broadcasting in the new media order. In A. Amin & N. Thrift(Ed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pp. 217-238). Oxford: Oxford Univ. Press.
- Rodgers, J. (2004). Doreen Massey: Space, relation, communication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7(2), 273-291.

- Scannell, P. (1989).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modern public life. *Media, Culture and Society*, 11(1), 135-166.
- _____ (1996). *Radio, television & modern life*. Oxford: Blackwell.
- Schlesinger, P. (1987). On national identity: Some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criticized. *Social Science Information*, 26(2), 219-264.
- Scriven, M. & Roberts, E. (2001). Local specificity and regional unity under siege: Territorial identity and the television news of Aquitaine. *Media, Culture & Society*, 23(5), 587-605.
- Sinclair, J. (2003). The Hollywood of Latin America. *Television & New Media*, 4(3), 211-229.
- Stavitsky, A. (1994). The changing conception of localism in U.S. public radio.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8(1), 19-33.
- Sterne, J. (1999). Television under construction: American television and the problem of distribution. *Media, Culture & Society*, 21(4), 503-530.
- Vries, M. de (2000). The rise and fall of decentral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argument and practices i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8, 193-224.
- Waisbord, S. (1998). When the cart of media is before the horse of identity. *Communication Research*, 25(4), 397-398.
- Woodward, K. (1997). Concepts of identity and difference. In K. Woodward(Ed.), *Identity and difference*(pp. 7-62). London: Sage.

Changes in the Locality of Local Television

A Conceptual Approach

Hang-Jei Jo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How can broadcasting both cause the crisis in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yet also offer the solution? The contradiction in broadcast localism has never been adequately resolved in spite of regulation at all in practice, in that localism simply cannot account for the diversity of modern life and for the external forces that incorporate local communities into much larger economic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concept of locality in local television, however, has been multiplied and enlarged in order to adjust to "time-space compression". Recently the local television have been "interface" combining and negotiating the globalization of media market and the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the economies of scale and the activation of local democracy, consequently aiming at the horizontal-cooperative network instead of old vertical-dependent one.

Keywords: locality, broadcast localism, space, place, network television